

회덕지역주택조합, 前 조합 관계자·용역 고소

박현석 기자 | 승인 2022.09.23 | 6면

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8명 고소
구청 제출 계약과 다른 이면계약
조합, 엄중수사 요청... 시위도
前조합장·용역업체 혐의 부인



재개발 재건축 = 충청투데이 그래픽팀.

[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] 대전 대덕구에서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전 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를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.

22일 회덕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30일 전 조합장 A씨와 전 업무 대행사 대표 등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업무상배임)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.

조합측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조합장 재직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.

또 전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 관련, 대덕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을 맺어, 유사 업체에게 용역을 맡겨 조합에 추가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.